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 104 (2015)년 11월 20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 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3대혁명을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으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몸소 구상하시였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으로서 3대혁명수행과 대중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인간개조와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출발점이었습니.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퍼주시고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어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높은 자주적존엄을 지닌 혁명의 주체로 자라나고 우리 조국이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지식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릴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이룩된 고귀한 결실입니다.

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 선군시대공로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진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강위력한 무기입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입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강성

국가건설과정은 그 주인인 사람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뼈속까지 체질화한 참다운 혁명가, 정신력의 강자로 키우는 과정이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기 위한 투쟁과정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력을 백배, 천배로 다지고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고지를 최대의 속도로 앞당겨 점령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구현해오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으로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승의 기치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입니다.

오늘 제국주의반동들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과의 대결전은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상과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타승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온갖 도전과 난관시련을 박차고 끊임 없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상, 기술, 문화의 세목의 붉은기틀 더 높이 휘날리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조선혁명가들의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적인 시기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으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직접 투쟁구호로 제기하고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운동이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참가하는 전인민적대중운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는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전환시키고 인민을 위대한 존재로 키우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사상이 깃들어있으며 혁명앞에 난관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백두의 붉은기정신이 집대성되어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데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만큼 실효가 크고 위력한 운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며 우리 혁명의 정치군사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을 다그쳐 이 땅위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대의 발전과 당의 요구에 맞게 응답한 높이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사람들의 사상개조나 생산보다 꾸리기같은데 편중하는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있으며 일부 단위들에서는 조건에 빙자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않고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 도식과 틀에 매달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것과 같은 편향들이 없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데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을 극복하고 이 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며 이번 대회를 진행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을 똑바로 정하고 그 관철을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하겠습니.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3대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기간 사상이 가장 위력한 혁명의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습니다. 백두밀림에서 휘날리던 혁명의 붉은기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오늘도 사회주의기치로 힘차게 휘날리고있는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사상을 중시하여왔기때문입니다. 사상이 탈색되면 붉은기가 퇴색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상사업에 혁명의 승패, 나라의 전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혁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현시기 사상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빼어 새기고 백절불굴의 혁명신념과 의지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정신력의 강자입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계급교양, 도덕교양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쪼아

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고 갑니다.

당조직들에서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불굴의 전위투사, 억척불변의 신념과 투철한 반계급의식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초월처럼 태우는 신념과 도덕의 강자들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잘 꾸리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과 단위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을 환히 꿰들도록 하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혁명선배들의 훌륭한 모범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단위를 당중앙위원회 프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을 하나 하고 선동사업을 한 가지 벌려도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직업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하며 기대와 포전을 비롯한 전투현장에서 화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을 울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집단주의위력을 강화하는데 사상사업을 지향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사상은 집단주의사상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이 어떻게 발양되는가 하는 것은 당의 사상으로 만약약된 집단의 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마음과 힘을 합칠 때 사상개조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대중의 정신력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수행을 추동하는 위력한 힘으로 될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동지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뒤떨어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킨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시기의 집단주의정신을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승화시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동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당조직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집단의 사상의지적단합과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이 준 혁명과업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충정의 인간들로 준비시키며 집단적혁신으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대중적영웅서사시를 펼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중의 단합된 힘으로 사회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나타나는 개인리기주의와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본태에 맞는 사상생활기풍, 도덕기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

1 면 에서 계속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생산공정과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밀고나가는 것은 현시기 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 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의 당조직들은 과학적타산에 기초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생산공정과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자체의 과학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교육기관의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며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더욱 다지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부단히 갱신해나가야 합니다.

농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과학농사, 과학축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기술혁명의 생활력은 국가인민경제계획과 자기단위앞에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에 의거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열리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문화혁명수행에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 식 사회주의문명국을 빠른 시일내에 일떠세울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일떠서고있는 수많은 건축물들과 자랑찬 창조물들에는 세상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명이 비껴있으며 사람들의 문화생활수준은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자기 부문, 분야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참다운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킴으로써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 단위와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먼 앞날에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자기 단위, 자기 고향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하여야 합니다.

당의 체육과 예술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어디에서나 노래와 춤, 다채로운 체육활동으로 흥성이게 하며 정세가 긴장하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 집단안에 락천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속에서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적이며 민족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기 행복을 자기의 손으로 창조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 누구나 이 운동에 주인답게, 한사람같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군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성있게 세우고 선후차를 바로 정하며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누구나 신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을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 군중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사회적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켜야 합니다.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잘하는것도 대중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의 근로자들이 금수산대양궁전을 찾아 자기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거둔 성과를 위대한 수령님들께 직접 보고올리도록 하는 사업도 정치적으로 의의가 있게 잘 조직하며 평양전학과 혁명전지치, 혁명사적지답사에도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핵심적인 사람들을 당에도 받아들이고 표창도 해주면서 적극 내세워주어 그들이 언제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과 3대혁명기술들에 대한 물질적평가도 따라세워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기관차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형단위를 내세우고 그를 통하여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영도 방식입니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운동전반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지지도단위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추진 현지교시를 관철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지지도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영도업적단위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앞장서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도업적단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나아갈 방향과 방도도 명백히 밝혀주시였기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얼마든지 3대혁명의 앞장에서 나아갈수 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들과 성, 중앙기관들, 각 도, 시, 군들에서는 현지지도단위들을 잘 이끌어주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모두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고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당의 의도에 맞게 생산부문의 현지지도단위들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에서 현이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영도업적단위들이 강성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추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로단체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 3대혁명소조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의 총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당조직들뿐 아니라 모든 근로단체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이 적극 발동되어야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체 동맹원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집단적혁신으로 자기 단위의 3대혁명수행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은 청년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최후병, 돌격대가 되게 하며 3대혁명을 힘차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치적후비대, 청년강국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야 합니다.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당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한대로 3대혁명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모가 나게 실천하며 3대혁명소조원들은 해당 단위의 생산공정과 설비의 기술개진, 현대화사업을 적극 다그쳐 백두의 칼바람정신, 단숨에의 기상이 나래치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벌리는 여러가지 대중운동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대중운동은 그 내용과 형식,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근본목적은 다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모든 형태의 대중운동을 3대혁명을 더 잘 수행하는데로 지향시키고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벌리고있는 대중운동의 실태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나타난 편향들을 바로잡아주어 이 운동들이 3대혁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군시대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활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선군시대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궁정감화교양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당에 대한 충정심과 열렬한 애국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대중운동입니다. 당조직들은 선군시대공로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적극 발휘하는 애국자, 위훈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게 하며 이 운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개선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시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이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도하는 대중운동인것만큼 마땅히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당위원회에서 직접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부서들과 당조직들을 발동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부서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며 특히 조직부, 선전선동부, 근로단체부를 비롯한 해당 부서들사이에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선전선동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맡아 지도하는 당위원회의 주관부서입니다.

선전선동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전투적으로 밀고나가는 나라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들끓게 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현 실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집행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래에 대한 지도를 심화시켜 나타난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하며 결의목표를 수행한 단위들에 대한 추천과 권장사업을 당원칙에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맡아보는 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제시되는 당정책을 환히 꿰고 높은 현대과학기술지식과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며 지도능력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에서는 이 부문 일군들을 전개력있고 결백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일정한 기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 잘해나갈수 있도록 기구직제를 고치는 문제도 연구해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태도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에 관한 문제이며 혁명을 계속하는가 마는가 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입니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는 지휘관들이나 됩니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마땅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하며 3대혁명수행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당앞에 자기의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야 하며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혁명적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은 자기 단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현 실태와 추진정형을 항상 손금보듯 환히 꿰고있어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직접 지도하는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지는 전투현장에 자주 내려가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당 제7차대회를 3대혁명수행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며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력사적인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조직들을 믿고 직접 맡겨주신 전투과업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나가며 온 나라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밀붙이 되고 봉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와야 하겠습니다.

제 4 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제 4 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가 11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대중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 하기 위한 장엄한 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 가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열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 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신 40년을 맞으며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로선을 우리 혁명의 불멸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3 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 겨나가는중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 에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우리 당의 3 대 혁명로선을 관철 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여 3 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의 기술들과 선군 시대로부터,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참가 하였다.

또한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을 비롯하여 3 대 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 일꾼들과 모범적인 3 대 혁명기술들이 방창으로 참가하였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주체적대중운동 의 시원을 열어주시고 고귀한 전통을 마련 해주시는 백두산열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히 빛내 이시며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총직하게 받들어갈 대회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상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제 4 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으며 《사상 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는 글발을 새긴 세폭의 붉은기와 3 대 혁명붉은기 형상되어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으로 받드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

하자!》, 《3 대 혁명의 기치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 키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 었다.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조연 준동지, 태종수동지와 도당책임비서들,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일꾼들과 3 대 혁명기술, 선군시대공로자 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개회자 선언이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 4 차 3 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면 끈기 전향적 전향적》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전달하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시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3 대 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크나큰 격 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승리의 기세들이 조선 로동당 제 7 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에 산악같 이 펼쳐나선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제 4 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가지 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대중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은 지난 40년간 백두산열세위인들을 길어 데 자기의 견인력과 생명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 여왔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 대 혁명붉은 기쟁취운동발단 40년을 맞으며 제 4 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진행하도 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3 대 혁 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활력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대중운동사상과 위대한 력사를 빛 내게 구현하고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 운동이며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방식 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전향적계기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 권리 마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백승 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어버리수령님의 대중운동명령방식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체64(1975)년 11월 3 대 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대중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고 걸걸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농민근로자들이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들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3 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투쟁목표로 내세워주시 고 이 운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업,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대중적인 사상개조, 기술개조, 문화개조 운동으로 시작된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건국의 공장, 기업소, 농장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로 확대발전되어 주체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력한 추 동력으로 되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 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높이 추 켜들고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사회주의건설은 비사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고 자연개조, 사회개 조, 인간개조의 모든 영역에서 로동당시대 를 빛내이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6년 11월 제 1 차 3 대 혁명붉은기쟁취 운동선구자대회를 마련하시고 대회참가자들 에게 력사적서한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을 전달하시어 이 운동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폭 넓고 깊이있게, 막력있게 전개해나가기 위 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 대 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할 데 대한 사상,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 고 총화하고 평가사업을 잘하며 다른 대중운 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이 운동을 당위원칙적인 사업으로 확 고히 전환시키고 근로단체조직들과 행정경 제일꾼들의 역할을 높인데 대한 사상들은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항구적으로 틀 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류의 심철과 로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3 대 혁명붉 은기쟁취운동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 히 전환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 위력과 생활력은 비사히 높아지게 되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조성 된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전반을 군사정치,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진행해나가 도록 하시으로써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선군혁명을 힘있게 펴밀어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전환시키시었다.

선군의 기치밑에 사상혁명이 전군적으로 벌어져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전지는 철운 성같이 다져지고 우리의 붉은기는 더욱더 힘차게 나뉘기였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만만을 뚫고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 천만대로 이루어 졌으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기초한 군민대단결이 빛나게 실현 되었다.

기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공 장, 기업소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자연호흡식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로 세차게 끓어 번져나갔다.

과학기술의 명마루를 향하여 줄기차게 밀어붙여나가는 과정에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닐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 최첨단과제의 열풍속에 국방공업과 인민경제발전에서 사면적의의를 가지 는 과학기술성파들이 이룩되어 우리 나라 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 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 인민의 문화생활영 역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었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 게 나라의 교육환경과 교육조건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의 대부대가 자라났으며 의 리는 곳마다에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회한 선경들이 펼쳐졌다.

우리의 생활문화와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민족 의 고유한 멋과 향취가 풍기고 전투적량만 과 풍만한 정서가 차려지게 되었다.

보고자는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사상 에 쌓아올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 가게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 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것은 주체혁명위 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맞게 3 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뚜렷이 천명한 특기할 업적이다.

답알에도 사상을 제우면 바위를 깰수 있 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 적사상공세의 불길드높이 5 대교양을 진공 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 대 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근분방도를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 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찾으시고 모든 일꾼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사 상을 심장에 조아라코 인민에 대한 열사복 무정신을 체질화하도록 전향적인 사상교양 과 투쟁의 원바람을 일으키시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정치사상강령, 청년강 령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 와 인민들, 청년들의 심장마다에는 당중앙

과 사상도 영도도 발전도 같이하며 죽어 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억척불변의 의지가 힘있게 맥동치고 온 나라의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세차게 끓어 번져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을 사회 주의건설의 기관차로 앞세우시고 과학기술 의 위력으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눈부 신 기적을 수놓아가고계신다.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 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파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원산지구공장, 평양기초식품공 장,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하여 새 세기 산업 혁명의 표본, 본보기로 되는 현대적인 생산 기지들이 일떠선것은 우리 당의 손길아래 과학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 이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우리 인 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 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 부동한 의지이다.

우리 당의 전진과학기술인재화, 인제강국 화수업을 위하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이 타오르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과학기술전당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도처에 꾸러진 과학기술보급실들과 원격교육체계 를 리용하여 근로자들은 지식의 탐을 마음껏 쌓아나가고있다.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단위가 3 대 혁 명붉은기, 2 중, 3 중 3 대 혁명붉은기를 수여 받았으며 3 대 혁명기술들의 대부대가 자 라났다.

3 대 혁명기술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 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당의 유일적 령도를 앞장에서 총직하게 받들어왔으며 당중앙의 사상과 로선을 지지하고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 대 혁명기술자들의 힘과 열정을 모아 주체적대중운동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려주시고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 동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서는 3 대 혁명의 기치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주체적대중운동사상에 쌓아올 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것은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변함없이 틀어 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강령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 로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확고히 지향 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령도업적단위들에서 3 대 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전 향단위, 본보기단위로서의 영예를 빛내이며 전국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

3 대 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 3 대 혁명기술자들은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당정책을 끝장볼 때까지 완강하게 관철 해나감으로써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눈부신 현실을 펼쳐놓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생산성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아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3 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이 조국의 강성변영을 앞당 기고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운동이라는것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켜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헌신할같이 펼쳐 나서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3 대 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와 3 대 혁명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우고 전형을 일반 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 로 힘있게 벌려 온 나라가 사회주의경쟁, 집단적혁신운동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 여 누구나 3 대 혁명기술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선군시대공로 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 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3 대 혁명붉은기쟁취 운동의 위력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꾼들은 3 대 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빛 내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로 지향시킴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시대의 슬결이 맥박치고 대고전진군과 함께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전국의 3 대 혁명기술자들은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세상 을 놀래우는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해 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선구자 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 야 할것이다.

당의 믿음직한 후배대, 척후대, 익측부대 인 청년들은 백두산영웅청년들격대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더디나 영웅 청년선화들을 창조하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꾼들, 3 대 혁명기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을 높이 받들고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 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는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김일성정치대학에 높이 모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김일성정치대학에 모셔졌다.

인민군대 정치일군양성의 최고전당에 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친출명장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무구한 도덕의리심의 최고정화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뚜렷한 파시이다.

김일성정치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0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제막식장은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면서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선군의 최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변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전제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가

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러온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양열에는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총성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에위병대의 입장제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최고사령관이 게양되었다.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대학의 일군들, 교직원, 학생들, 각급 군사학교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군인가족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약으로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대학의 일군들이 하였다.

순간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기특한 영상이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당을 따라 선군

혁명의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전우부대, 일심 의대군단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김일성정치대학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군사학교들과 여러 단위들, 대학의 학부, 강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맹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전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인민무력부장 박영식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선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태양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경건히 우러르는 우리

모두는 절세 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제사상, 선군혁명사상을 창시하시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제혁명 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군력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면시켜주시였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해 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빛나는 혁명활동력사와 불멸의 명도업적을 김일성정치대학에 뜨겁게 깃들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대학의 전신인 평양학원을 창립해주시고 역사적인 첫 강의도 해주시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존엄한 전화의 나날 교육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여 모든 학생들을 훌륭한 정치일군으로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명도의 손길은 대학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에 역력히 आरो세겨져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성이 강한 유능한 정치일군들을 더 많이 키우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귀중한 설비와 자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직접적인 혁명가, 숨은 노력가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도 안겨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 대학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대학, 력사가 있고 판적이 있는 대학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명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정치대학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하시며 대학의 교육사업을 개선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온 나라 천만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군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연설자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군사교육 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당중앙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혁명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흘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명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대학이 전군의 앞에서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사교육혁명의 목표를 확고히 틀어쥐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당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핵심이 될 정치활동가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교원들이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고 과학리론적지질과 교육실무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실천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나감으로써 당에 충실하고 능력있는 혁명인재들을 키우는데서 부러가 되고 밀거름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학생들은 영광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실력경쟁과 당성단련의 열풍속에서 김정은백제산의 진짜배기정치일군으로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학이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교육행정사업을 개선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군사교육혁명수행의 모든 면에서 군사교육기관들의 본보기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오종출7면대청호쟁취운동과 군위부대운동의 불길높이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약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직위군에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원한 축복속에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높은 군기들을 앞세우고 기백있게 나아가는 대오마다에는 회색의 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뜻깊이 이어나갈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의 기상이 융솟았다.

이어 혁명군악을 장중하게 울리며 조선인민군악단이 석석하고 제인 대형변화를 펼쳐며 최정예강군의 전투적위력과 면모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붉은기정신으로 당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해가는 자랑스러운 선구자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려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

자력갱생의 궤도 따라 승리만을 떨쳐가리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역세게 저라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상이 세차게 맥박치는 붉은기정신으로 당과 인민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훌륭한 열매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9일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결과를 로해하시오. 우리의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관념에 투쟁한 결과라고 말씀하시었다.

형명의 년대기마다 빛나는 로력성공과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옹호하여온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전례없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자력갱생의 불꽃, 애국중성의 불꽃을 더 높이 쭈켜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선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한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자! 가요 합니다.》

불이 달린 화약과도 같았다. 쇠잔기간안에 우리의 지하

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 당이 준 과업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안은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서로서로 피끓는 심장의 맹세를 나누며 일터마다에서 결사관철의 불꽃을 거세차게 지펴올렸다. 조권이 좋아서 아니었다. 종전방식대로 필요한 지구장비만 마련해도 해도 몇달이상,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설계대로 타산하면서 술한 자재와 설비, 장치들을 들여와야만 한다면 머리를 기웃거리었다.

그러한 때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 어떤 불꽃은 웨쳐이러져 나왔는가.

아니다.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그것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

이곳 로동계급은 무성계 수주처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우리나라의 첫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 본래로 자력갱생의 기상이 또다시 세차게 내재되었다.

공정상 140일 이상 걸려야 하는 방대한 지하전동차제작과제, 뜻깊은 당찬전 일꾼들까지는 80여일밖에 없었다. 140일 대 80일, 이것은 시간과의 투쟁, 불가능과 가능한 대결이 벌어졌던 정전력의 결사투쟁이

것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 주신 붉은기정신은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고귀한 재부로 심장속에서 쏘아박고 산악같이 떨쳐나설 때 정령 못할 요새만 없다! 이런 비상한 자각을 안은 려합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꾼들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야전형지휘관이 되어 최선에 위치를 정했다.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 어느 기대결에나 일꾼들이 있었다.

각 공장, 직장의 로동계급은 기대마다에 가공해야 할 부분 품들과 그 수행날자를 시간을 쪼개며 콕집어 싸붙였다. 용접작업은 맡은 내이지속한 기능공도, 자재유닛에 떨쳐나선 신일로동자도 종전의 몇배나 되는 책임을 어깨마다에 걸머지고 비상한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었다.

무조건 제 날자에, 모든 것을 우리 식대로!

모두의 심장속에 간직된 이 말은 이곳 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의 대명사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절체부러 우리 식으로 하였다. 굶어가고 심한 실정에 맞게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성과와 경험을 널리 받아들여 대차구조방식과 차바퀴의 선택 및 제작도 주대있게 하였고 필요한 자재들도 우리의 것으로 필요하였다.

제반직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공정상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조립하게 되어있던 차체 열력을 단번에 묶어 조립할수 있는 지구를 창안도입하여 조립기일을 4일 이상 앞당겼다. 소재직장의 전수원들이 오래동안 압연로고장으로 쓰지 못하던 철관교정기를 빠른 시일안에 되살려낼 때 전기구직장과 내연직장의 기능공들은 피타는 노력으로 차단기와 소형압축기를 자체로 제작해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립체적으로!

전동기공장에서 종전에는 업무를 낼수 없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혁신이 일어났다. 지하전동차제작에 비동기전동기를 받아들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이곳 로동계급은 설계와 부속품제작을 병행하면서 종전방식은 40일 이상 걸려야 한다면 8대의 비동기전동기생산과제를 불과 10여일만에 집적으로 완수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묵묵히 지키려는 결사관철의 열의가 모두의 가슴마다에서 활화산만장처럼 분출하였으니 주물공장과 단조직장의 로동자들은 금시 부여하여 이글거리는 소재들을 현장을 운반하며 식히었고 전선공장의 종업원들은 동선생산에 필요한 면직을 부속까지 저자하여 각종에서 들고나와

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였다. 하루에도 여러차례나 통통 뚫고 총혈된 눈에 약을 넣으며 18시간 이상의 용접작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작업장 김윤철동무를 비롯한 대를작업반의 로동자들, 남자들은 어려워하는 고장자전설치를 스스로 맡아 이룰만큼 오파 밝히며 전동기생산의 돌과귀를 열어제 김명복동무와 전동기조립장 보조기계작업반의 여성종업원들, 두달반의 전수원기간 기대열을 순간과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침심하며 맡은 과제수행에서 2배이상의 속도를 창조한 직장장 정태현동무와 1가공직장의 전수원들이며 장비직장, 객차직장, 도장직장의 로동자들, 당장 수습을 받아야 할 몫이지만 당이 준 과업을 관철하기 전에는 절대로 현장을 뜰수 없다며 주야간 전투장에서 조직적치업을 줄기차게 벌인 려합기업소 책임일꾼 김철수동무...

정령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애국중성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520여종에 8만 개이상에 달하는 부속품들과 730여종에 4100여개의 부속품조립 등 방대한 과제를 붙이 번째 나게 해주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으로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내고있었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며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한 빛이 난다는 철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이곳 로동계급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친히 감사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렇다.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새로 만드는 과업을 통하여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뚜렷이 증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의 시운전과정을 자세히 료해하시며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려관부문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수준의 지하전동차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데 대한 전투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첫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그때처럼 사대와 보수를 불사리 지하전동차의 창조정신을 보란듯이 내놓은 이곳 로동계급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붉은기정신을 높이 펼쳐놓을 총을 지고 있는 위훈의 자욱을 자랑차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기관차 조립 직장에서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 에를 제일 먼저 지닌 배전작업반을 모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된 소식에 접하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기관차조립직장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한다.

경쟁이나 하는듯 대차작업현장에서는 《붉은기》5065호전기기관차의 수리전투가 한창이다. 육중한 대차에 작업반장 정철철동무와 수리공들인 정영호, 조선철, 조영공동무들이 제정지배와 복원장치, 하중분배장치를 점검한다. 수리공들과 보조를 맞추며 용접공 김정호동무도 용접불꽃을 날린다.

산소용접을 하던 차바퀴작업반 황명철동무가 작업의 열매에 우리에게 말한다.

《결사관철은 우리 궤도로동계급의 투쟁전통입니다. 그라기에 우리는 하루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전투현장을 뜨지 않습니다.》

조립작업에 열중하고있는 용접공, 수리공, 기계공수준의 수리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 로동계급이 만든 첫 전기기관차를 보내주시고 몸소 이 틈을 달아주시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차, 이제 며칠후면 《붉은기》5001호가 시운전을 끝마치고 떠나간다. 그날의 붉은기정신으로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을 전하...

전 혁 철

비약의 불바람이 다

새로운 지하전동차생산은 선형공정을 맡은 소재직장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더욱 무겁고 책임적인 임무였다.

1700여종에 19만 6000여개나 되는 소재의 대부분을 8월까지 단 40일만에 생산보장, 현존생산능력으로 이 기간에 그 많은 소재를 생산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업을 두고 직장 일꾼들과 로동자들에게 할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붉은기정신이 있다. 이것이면 두려울것이 없다.

직장종업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속에 소재생산전투장은 시작부터 불도구나 되어 들끓었다. 기대될 때마다 생산일정표가 나붙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직장일꾼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을 전투를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꽃을 가리키지 않고 굳이 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소재생산의 전초선을 지켜선 준비작업반의 로동자들이 파강의 공격전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수많은 각종 형상과 철관들을 생산에 앞세워 보장하기 위해 헌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이에 뒤질세라 플라즈마작업반, 절단작업반, 압연작업반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려이 받아

바라 이러한 때 힘차게 가동하던 1000t프레스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정황이 조성되었다. 원인은 프레스의 기름이 가열되어 압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었다. 한초가 귀중한 때에 기름이 식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았다.

직장일꾼들인 림호, 리영철동무들이 앞장에서 서서 기름을 교체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가열된 기름으로 하여 순식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누구 하나 잠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지하전동차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70%이상을 자신들이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가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이들이기에 수백kg의 기름을 반복교체하며 증산의 통을 높이 올려갔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이들 위해서는 불꽃에도 서슴

없이 뛰어들고 사산도 맞바나야 하는것을 삶의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이었기에 긴장한 전투속에서도 하나하나의 소재에 깨끗한 애국의 향수를 아낌없이

우리 식 지하전동차의 개발생산, 이 자랑성과 속에는 이곳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과 대원들의 숨은 노력도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분야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괄발사!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취를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사기자 정경철

자신의 한몸을 내면 이들의 심장속깊이 불타고있는 건진 되어있었던 무엇인가?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이었고 그에게 이어 보답하려는 정성이었다.

진정 이것이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이 되어 이들은 새로운 지하전동차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계획보다 보물이나 앞당겨 원만한 생산보장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 소재직장에서 ◇

아들이고 혁신의 불꽃을 쉬임없이 날려 전수시작후 불과 몇시간만에 지난 시기에 비해 소재생산이 2배이상으로 정종 뛰여올랐다.

바로 이러한 때 힘차게 가동하던 1000t프레스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정황이 조성되었다. 원인은 프레스의 기름이 가열되어 압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었다. 한초가 귀중한 때에 기름이 식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았다.

직장일꾼들인 림호, 리영철동무들이 앞장에서 서서 기름을 교체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가열된 기름으로 하여 순식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누구 하나 잠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지하전동차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70%이상을 자신들이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가 크게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이들이기에 수백kg의 기름을 반복교체하며 증산의 통을 높이 올려갔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이들 위해서는 불꽃에도 서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몽골 울란바타르시 친선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0일 에르메데 바트-을 수도행정장관 및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울란바타르 시친선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환경정수를 바치시였으며 세계 자주화위업수행과 나라들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을 받아안은 할머니는 늘 자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의 제도야말로,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있다.

장수자람나리의 가족, 친척들은 오늘날의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장성국건설에 참가하여 바지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일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0호 주체104(2015)년 11월 1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평양호텔

2중3대혁명붉은기
만경대관광후보22직장 남원공생체소 농림협동농장 제9작업반
은천군 남산협동농장 제7작업반
린산군 백천농장 제1작업반
자강도 고평잠업농장 철원군 정동협동농장 제5작업반
형제산구역 협산남새전문 협동농장 남새제3작업반 두만도리공장 신의주시인민위원회 자체상사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

3중3대혁명붉은기
농촌고지생산사업소 인흥1작업반
창성교수집 배천군 화산협동농장 제9작업반
은천군 남산협동농장 제7작업반
린산군 백천농장 제1작업반
자강도 고평잠업농장 철원군 정동협동농장 제5작업반
형제산구역 협산남새전문 협동농장 남새제3작업반 두만도리공장 신의주시인민위원회 자체상사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

2중3대혁명붉은기
만경대관광후보22직장 남원공생체소 농림협동농장 제9작업반
은천군 남산협동농장 제7작업반
린산군 백천농장 제1작업반
자강도 고평잠업농장 철원군 정동협동농장 제5작업반
형제산구역 협산남새전문 협동농장 남새제3작업반 두만도리공장 신의주시인민위원회 자체상사 구성시 남산축산전문협동

3대혁명붉은기
2. 8비날론혁명사적관 함흥시 해안구역 수협동농장 파수작업반
락원군 서중협동농장 제2작업반
홍원군 동중협동농장 제2작업반
유덕군 성천협동농장 제3작업반
평양역 평덕수출피복공장 평양농민건강소 평양목재공장 가구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항해복도에서

당의 위대한 국토건설수상을 높이 받들고 항해복도에서 국토관리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도에서는 올해 봄가을철의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1만 4000여정보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십km의 도로와 강하천들을 정리하였으며 많은 살림집, 공공건물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연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승승급한 사업입니다.》

도의 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항해복도를 사회주의선진국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러갈 일념으로 대중을 국토관리사업으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만도시, 군들의 각계 근로자들이 산파 들에 615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연안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훌륭한 꾸러놓은 양묘장들에서 앞선 나무모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였다.

신계, 도산, 상원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도 나무모시기간제별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도시와 마을, 산들에 수백만그루의 창성이 일어나, 세실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사를 물에 대한 높였다.

평안군에서는 수km구간의 평양-개성고속도로부속공사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냈으며 담양구간의 도로를 정비하고있다.

수안, 림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도 도로복합화, 용역공사, 암거보수공사, 목회사 등 도로의 안전성, 문화적 분위기를 잘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은파군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읍지구 동산천변방에 수천m의 장식쌍기 등을 양막대해제하고 초구리의 용석천변방보수과 비타파기를 진행하여 큰물피해를 막을수 있게 하였다.

사리원시 상매천을 비롯한 강하천정리사업이 시, 군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0여km구간의 장식쌍기와 보수가 말끔히 끝났다.

당의 후대사람, 미래사람의 당의 뜻을 받들고 펼쳐나선 사리원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드넓은 열의속에 육아된, 애육원정신이 마감천에서 추진되고 상매천에 수백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고있다. 서흥군 법안양어장이 개건되고 서흥호소년단야영소가 새롭게 변모되었으며 신계군을 중심으로 상원군 후리 등 여러곳에 야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이 건설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남조선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에서 20일 북남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2일(일요일) 오전에 평양체육관에서 4, 25체육관, 기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2일(일요일) 오전에 평양체육관에서 4, 25체육관, 기

